



요 배 군
<대만 충서도원>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다

일 년 반 전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머니, 할머니, 아저씨, 이모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빠, 언니도 찾았어요. 사실은 처음 인덕법단에 도착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김노전인께서 계시던 법단이니까요. 또 여기에 계시는 점전사, 단주님들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고 잘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제일 깊은 것은 바로 한국에서 첫 번째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은 박정옥 단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끓여준 라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기 때문에 그 때는 정말 눈물 콧물이 다 나오면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운 것을 점점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때 울면서 먹는 장면을 생각하면 제 입에 미소가 살짝 띄워져요.

우리는 장노전인 덕분에 법단에서 생활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우리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소향을 모시고, 방을 청소도 하고 학교에 갔어요. 처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 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익숙해지고 한국의 헌향례, 헌다례.... 등 우리 일관도와 관련하는 예절을 많이 배웠어요.

이것은 다른 친구들의 소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그로 인해서 친구들과 우리가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빼 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성이 행복으로 가득차고 있어요. 법단의 생활은 외부인이 항상 이해하기 힘들어요.

친구는 항상 제 하루의 스케줄을 이해 못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친구한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관도가 무슨 종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관도가 무엇인지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구도시키고 싶은데 한국말로 잘 설명을 못해서 그냥 나 두었어요. ㅠㅠ

제일 특별한 질문은 “나 한 번도 채식주의자랑 만난 적이 없었는데 완전 신기해요.”하며 “고기 아주 맛있어요. 한 번 먹으러 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일 년 반의 훈련(법단생활)을 받은 후에 이런 기가 막히는 질문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았어요. ㅋㅋㅋ 다행이에요.

세월이 화살같이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정은 점점 들었는데 떠나가는 날이 무정하게 도착 했어요. 여기서 만나던 사람, 같이 생활하던 사람,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지내는 시간이 영원히 제 마음속에서 존재 할 거예요.

在韓國再次出生

◎ 台灣忠恕道院 廖培君

一年半前的今天，我在韓國這個國家再次的出生了。在這裡我不僅找到了奶奶、媽媽、叔叔、阿姨，還找到了哥哥跟姐姐呢！事實上，第一次來到仁德法壇時，沒有任何的擔心跟憂慮，就只是住進來了，如果要問我為什麼會沒有任何擔憂的話？理由就是因為這裡是金老前人棲身過的中堂，還有就是這裡的點傳師們、壇主們對我們都很親切又照顧有加。

讓我印象最深刻的事情，就屬我剛到韓國時的第一頓午餐了，那頓午餐是廚師媽媽—朴壇主專程為我們煮的韓式拉麵，因為我是個不太能吃辣的人，所以那時候真的是一把鼻涕一把眼淚的把拉麵吃完…。但時間慢慢的過去，在我不知道的情況下漸漸的能吃辣了，現在想起當時邊哭邊吃麵的畫面，嘴角都不自覺的泛起了笑容呢！

我們是憑藉著張老前人的福氣，才能在中堂裡面舒適的生活著。跟學校裡其他同學、朋友不同的是，我們每天早上4點30分起床燒早香、打掃房間後再去學校上課，對我來說，一開始要這麼早起床是一件很困難的事情，但是經過一段時間後不僅漸漸的習慣了，也學習到了韓國的燒香禮、獻茶禮……等跟一貫道有相關聯的禮節，這些收穫是其他同學們所沒有辦法比較的，也因為這樣，我們跟同學們一起相處的時間不多，但是我們的心性是充滿著幸福的。

中堂裡的生活是不為外人所瞭解的，學校裡的朋友常常對我一天的行程感到無法理解。在學校裡，經常會有朋友問我「為什麼要這麼早起床燒香？」不然就是「一貫道是怎麼樣的一個宗教呢？」被問到這樣的問題真的是讓我很慌張，為什麼？因為我不知道該怎麼用韓語解釋一貫道是怎麼樣的一個宗教信仰，說實在的那時我真的是快鬱悶死了!!真的想帶學校裡的朋友去求道，但是因為韓文不好，沒辦法說明，只好放棄了。在我遇到過的問題當中，最特別的莫過於「我從來就沒有遇到過素食主義者，真的是很神奇耶!!」然後接著說「肉很好吃耶!!要不要一起去吃呀？」這真的是讓我哭笑不得……經過一年半的訓練(中堂生活)後，對於這種莫名其妙的問題漸漸熟悉了，也知道該怎麼樣回應了。

經過時間的流逝，我們的情誼漸漸增加，但是該離開的日子也無情的到來了，在這裡遇見的人、一起生活過的人、一起工作過的人，我是不會忘記你們的，我們一起度過的時間永遠都會在我內心深處存在……。